

국립대 “등록금 동결 결정” vs 학생 “인하”... 입장차 여전

유학생 이탈 등 재정난 불구
코로나 여파, 당국 정책 등에
따라 올 등록금 동결하기로

학생들, 캠퍼스 시설 이용 안해
원격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주장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올해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서울대는 “최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등심위는 1년간의 등록금을 산정하는 심의기구다. 서울대 등심위에는 총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모습. /뉴스시

9명의 위원 중 학부학생위원 2명, 대학원학생위원 1명 등 총 3명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서울대 측은 1~2차 등심위에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은 1.2%였다. 학교 측은 등록금이 2009년부터 동결·인하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을 통해 공정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

국 동결로 의결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장학금 규모가 18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히려 전체 예산은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확충 금액은 약 10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올해 대학에 허용된 최고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은 1.2%다. 고등교육법은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2%다.

전북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유희철 학생처장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학생 복지나 교육 등에 어려움에 없도록 재정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와 공주대도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런 등록금 동결 기조는 아직 등록금 결정하지 않은 국립대와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등록금 환급 요구가 강했던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도 예정돼 있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나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

을 지원한다.

서울 사립대 한 관계자는 “십수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인하와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유학생이 이탈하는 등 대학 대부분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당국이 등록금 동결·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 채 등록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덮치며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됐고 캠퍼스 시설도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는 대학 측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학생들이 ‘인하’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796명 가운데 87.4%가 ‘등록금 액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는 응답자 923명 가운데 전액 장학금 수령자 127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로, 수업의 질은 하락했으나 예년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2학년도 수능 국어, EBS 연계율 축소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변경
연계율 기준 70%서 50%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영역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형 수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EBS 연계율도 낮아진다.

우선, 2022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는 선택형 수능으로 변경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수능 국어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렀지만, 올해부터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각 11문제씩 출제돼 이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안내’에 따르면 기존 화법, 작문, 언

어 시작하던 국어 시험지가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으로 시작한다. ‘독서’와 ‘문학’의 출제 문항 수는 기존 15문항에서 2문항씩 늘어나 각 17문항씩 출제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기존 모의고사 형식과 달라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 있으므로 어느 과목에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할지를 미리 구상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BS연계율은 대폭 낮아진다. 기존 70%에서 50%로 하향된다. 국어 영역에서 중 연계 체감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문학’이다. ‘독서’는 EBS 연계교재 지문에서 주제나 소재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체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EBS 지문 주제나 소재를 바탕으로 관련 글을 읽거나 어휘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대부

분 학생은 EBS 연계교재 외에 다양한 지문을 연습하면서 ‘독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추세다.

그러나 ‘문학’은 다르다. 다양한 작품을 접하기도 하지만,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깊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우연철 소장은 “연계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문학’이므로 이를 공부할 때에도 EBS 교재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수능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영역별 학습방법까지 함께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어 영역에서는 여전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고 근거를 꼼꼼히 찾아가면서 문제 풀이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노원구, 지역상생 머리 맞대

협력·교류 도모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3일 교내 도서관 에스티아트(ST Art)홀에서 ‘대학, 지역상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과기대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수행 및 연계협력력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이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음’은 서울과기대가 지역 공동체 등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온 프로젝트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속의토론·세미나·포럼에 이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리빙랩 운영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원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의제 속의과정 추진 현황 공유(사단법인 이음 김중수 연구위원) ▲노원구와 대학연계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

터 김소라 센터장) ▲성북구청 사례로 본 대학과 구청의 협업(이현웅 서원대 교수)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마련됐다.

이어 지역상생의 길에 대한 온라인 참여자와의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은주 시의원, 최광빈 노원구 힐링도시추진단장, 이철호(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대표, 김종선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노원구와 지속적인 상호협력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 세 번째)이 전남교실ON제작팀, 허준석 범박교 교사 등 11인(단체 포함)을 선정해 ‘2020 희망교육대상’을 수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선정

교육인 8명, 교육기관 3곳 수상

신애선 서울대 교수와 최석훈 한국해양대 교수 등 교육인 8명과 교육기관(단체) 3곳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2020 희망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과 ‘희망교육 멘토단’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 현장 숨은 영웅을 선정해 ‘2020 희망교육대상’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 희망교육대상’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제안으로 최고진 세종시 교육감 등 9인의 ‘희망교육 멘토단’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심사위원 7인의 심사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11인(단체 포함)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기관(단체) 부문에서는 ▲전남교실ON제작팀 ▲서울대 관악 학생생활관 ▲두루유치원이 뽑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경기 범박교 허준석 교사 ▲인천시 교육청 권상준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이연조 사무관 ▲전북교육청 김은희 장학사 ▲강릉경강대 교수 ▲박현수 백석문화대 교수 ▲신애선 서울대 교수 ▲한국해양대 최석훈 교수가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정성원 세종대 교수, 한국셰페드학회장 취임

세종대학교는 정성원 건축학전공 교수(사진)가 제6대 한국셰페드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한국셰페드학회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관련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학문연구 외에도 전국적으로 셰페드 관련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셰페드 인증, 법규제정 등에 관여

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학회장 취임 후 ▲학회와 논문 위상 제고 ▲국제적 교류 확대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학회의 재정확보 등 4가지 성취 목표를 세웠다. /이현진 기자

